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용 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중매체 속 인물의 감성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홍 승 란

대중매체 속 인물의 감성적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용 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홍 승 란

인 준 서

홍승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원 과정에서 제작한 작품 중 2019년 3월 석사 청구전 ‘시선, 그려지는 사람과 그리는 사람’의 출품작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조형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화면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 새로운 소식을 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바일 기기의 등장으로 전 세계의 소식과 정보들을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개인이 이러한 사건들을 촬영하고 편집하여 다중(多衆)에게 자신의 견해를 방송까지 할 수 있는 ‘1인(人) 1미디어(Media) 시대’를 열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에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보게 되는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과 실제적으로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토로한 적은 없지만, 대중매체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웬지 모르게 마음 쓰이는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그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까지 이르면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처럼 다가왔다. 또한 본인의 삶의 모습을 그들의 삶에 슬며시 대비시켜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삼스레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징적 이미지로서 개인적 삶이 잘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작품 속에 ‘동 시대(同 時代)의 삶의 감성’을 이야기하는 소재로 드러난다. 일면식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 또한 직접적

이지 않지만, 이러한 표현은 삶의 환경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미디어 시대에
기에 가능하다.

본인의 작품은 인물의 얼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얼굴은 그 인물의 정
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이미지'이다. 얼굴은 눈, 귀, 코, 입 등의 주요 감각
기관이 모여 매 순간의 생각과 감정이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으로 표정을 직
관적으로 드러낸다. 그러기에 얼굴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대표적
신체 부위이다. 그리고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기에, '삶의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역할에 주목하여 작품으로 드러낸다.

본인은 이 인물들을 '표현주의(表現主義)적 구상(具象) 미술'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동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본인의 삶과 연계된 '삶의 감
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에, '감성이 내재된 색채'와 '감정의 흐름을 유발
하는 붓 자국'을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 작업을 이루어간다.

본 논문은 '시대를 담아내는 거울'로서, 오늘의 삶을 지배하는 '미디어 시대
의 예술 환경'을 살펴보고,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인물들을 소
재로 하여 표현하는 본인 작품의 '시대적 의미'를 인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이 풀어가야 할 과제를 논
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4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4
1) 삶의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4
2) 미디어를 통한 대중적 인물과의 만남	6
2. 작품의 조형적 측면	13
1) 표현주의적 표현형식 (감성이 내재된 색채와 붓 자국의 움직임)	13
2) 삶의 내적 감성이 깃든 얼굴	16
3) 작품 분석	19
III. 결론	31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그림 1] 손홍민의 울음 1, 91 × 72.7 cm, oil on canvas, 2018	19
[그림 2] 손홍민의 울음 2, 91 × 72.7 cm, oil on canvas, 2018	19
[그림 3] 손홍민의 울음 3, 91 × 72.7 cm, oil on canvas, 2018	19
[그림 4]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7	21
[그림 5]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8	22
[그림 6]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8	22
[그림 7]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7	23
[그림 8]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9	24
[그림 9] 망치부인, 100 × 80.3 cm, oil on canvas, 2019	25
[그림 10] 허준호, 53 × 45.5 cm, oil on canvas, 2017	26
[그림 11] 이하늘, 100 × 80.3 cm, oil on canvas, 2018·19	27
[그림 12] 크러쉬, 91 × 72.7 cm, oil on canvas, 2019	29

I. 서론

허버트 마셜 맥루한 (Herbert Marshall McLuhan, 1911~1980)은 일찍이 1964년 <미디어의 이해>라는 저서를 통해 “미디어는 메시지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라고 통찰하였듯이,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 물질 기반뿐 아니라 ‘의식과 사고’를 확장시켜 ‘삶의 가치관과 방식’마저 변모시키고 있다.¹⁾

미디어 시대라는 오늘날, 우리는 라디오, TV에 이어 디지털 테크놀로지 (Digital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Internet)을 통해 전 세계, 모든 방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견해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즉,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룩된 미디어 기술은 대중을 중심으로 한 대화지향적인 매체로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스마트폰과 TV, 컴퓨터이다. 본인이 알고자 하는 지식이나 정보 즉, 정치, 역사, 문화, 교육, 예술, 패션, 사람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지하고 생각한다.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구매하고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정보 또한,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있어서 미디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얻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뛰어 넘어, 사회의 지배적 규범, 가치, 제도 중의 하나로서 우리의 사고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미디어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날이 사고와 생활의 폭을 확장

1) 유영만, “<<미디어의 이해>>, 왜 미디어가 매체가 아니고 메시지인가?”, blog,2020.10.22. <https://blog.naver.com/kecologist/221164716614>

시키는 ‘삶의 환경’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각 개인의 삶에 근거한 고유한 경험과 지식을 통한 관점(觀點)으로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그야말로 내가 아는 것, 때로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보는 이의 다양한 관심이나 욕망 그리고,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는 다분히 주관적 영역일 수 있다.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뉴스나 TV 프로그램, 유튜브를 통해 정치인이나 운동선수 그리고 가수와 시사 BJ, 영화배우 등 각계각층의 대중적 인물을 통해 시대가 안고 있는 정보와 가치 그리고 ‘문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동시대성’을 감지한다. 이들은 이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상징하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로서 이들을 통해 삶의 방향성과 나아가 시대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인지하며 느끼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대화나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모습과 진지한 표정에서 희망과 절망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끼기도 한다. 누구와는 정치적, 인간적인 동질감을 느끼며, 누군가로부터는 미처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연민을 갖게 되며,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여 보기에 흐뭇해 응원해 주고 싶은 감정들을 품게 되며, 잘못된 습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생각들을 반추하게하기도 한다. 그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느새 본인을 바라보는듯하다.

본인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인 ‘미디어’에서 오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물들을 만난다. 그들에게서 시대성을 인지하고, 자아 성찰로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는 감성적 견해를 갖게 된다. 이에 그들을 작품 속으로 불러들여 감성이 내재된 색채와 움직임이 유발하는 붓 자국을 조형 수단으로 한 ‘표현주의(表現主義)적 구상(具象) 미술 형식’으로 작품을 이루고 있다.

이에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의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디어를 통한 특정 인물들과의 만남과 그로부터

갖게 되는 생각을 본인의 삶과 연계하여 작품을 이루는 관계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내용과 조형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적 인물과의 만남과 그로부터 갖게 되는 특정 인물들에 대한 관심의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동 시대 삶의 의식과 모습을 논하고자 한다. 조형적 측면에서 ‘얼굴 중심’의 ‘표현주의적 구상형식’으로 작업에 임하는 동기를 제시하고, 나아가 작품 설명을 통해 작품 형성 배경과 의도를 그리고 조형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Ⅲ장 결론에서는 연구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디어 환경에서의 미술 작품의 창작 동기부여와 의미를 고찰하고, 본인 작품 연구과정에서 갖게 된, 해결하여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작품의 내용적 측면

1) 삶의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대량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삶의 패러다임(paradigm)’을 변모시키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초반 이후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집중, 물질적 풍요, 교육의 확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적 행태와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문화 사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발달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1인 1미디어 시대’를 열게 된다. 즉, 인터넷(Internet), 스마트폰(Smart Phone),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전 분야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흐름을 주도하고, 개인의 사고와 의식에 영향을 미쳐 ‘삶의 구조와 방식’을 변모시키고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1인 1미디어 시대’의 ‘미디어의 개인화’는 글쓰기와 촬영 그리고 음향이나 영상의 기록과 편집을 용이하게 하여, 자신의 견해를 전달할 수 있는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한다. 강화된 소통역량은 개인은 물론 다중(多衆) 전달마저도 가능한 1인 방송의 시대를 열고 있다. 사회 관계망을 통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꽃처럼 터져 나오는 정보홍수 속에 떠밀려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진화는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루어지는 ‘대면(contact)방식’의 삶의 구조를 ‘비대면(untact) 방식’의 환경에 이르도록 변모시켜 가고 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나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네트워크화된 사회 관계망의 확대는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정보를 분별하는 사고 판단은 흐려져 혼란스러워 가는 양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대면시대의 ‘아날로그적 사회’에서 비대면적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검증되고 여과되지 아니한 정보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마저도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람과 만나 대화와 친분을 쌓는 경우보다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의 만남과 정보가 훨씬 많다. 우리 대부분은 꼭 함께하여야 할 가족과 자신이 종사하는 직장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을 중심으로 한정된 사람들과 교류와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방면의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루어질 수 있기에, 일상 속에서 실제의 대면 만남보다 훨씬 더 많고,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

대중매체에서 스쳐 지나가는 중에서도 웬지 모르게 마음 쓰이고 관심을 갖게 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게 하여, 그들에 관한 인간적인 면모, 정치적인 성향, 삶의 과정을 더욱 세세히 알게 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의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색다른 호감을 갖게 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대중매체 혹은

대중문화는 현대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개개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미지들은 동일할 수 없고, 실로 다양하다. 그것은 역사와 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것이며, 작가는 가족이나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기억, 사고에 따라 형성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사물이나 현상, 이미지에 대한 판단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매스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대중적 인물들은 사회 그리고 개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한다.

대중적 인물들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시하기에 그들의 말이나 행위 그리고 신상에 관한 많은 담론들이 형성된다. 이들을 통해 동시대의 변화되어 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미래 지향적인 앞날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의 이미지는 작가들의 창작 활동의 풍부한 소재로서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예술은 시대성을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때마다 기존의 예술계의 작동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추구하여 갈 것이다.

2) 미디어를 통한 대중적 인물과의 만남

개인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은 사람의 관심을 끌며, 사고와 가치 체계에 큰 영향을 준다. 본인의 사고의 전환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본인이 신앙을 갖게 된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다. 본인에게 신앙은 인간 존중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정치와 역사, 국가와 국민의 의미에 대해 새삼스러운 관심을 갖

게 만들었다. 이는 이후 매스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 인터넷 검색으로 구체적이고 보충적인 정보를 구해 더 알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하기에 역사에 대한 관심도마져 높아졌다.

손흥민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그 감정들에 대해 아주 건강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쉽사리 극복한다고 한다.²⁾

영국 프리미어 리그 Tottenham Hotspur Football Club의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패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평평 운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몰래 울거나 힘들게 참는 성인들의 울음에 대한 나의 익숙한 생각들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시합에 패해 안타까워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분해서도 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울면 따라 울고 싶어진다. 본인도 누가 울면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 잘 운다. 그런데 그의 울음은 우습다. 그리고 슬프지 않다. 분하고 서럽고 슬픈 감정을 눈물로 쏟아내고 있는 그를 보며 본인은 웃는다. 경기에 진 서운함을 그가 대신 눈물을 철철 흘리며 울어줌으로 본인의 감정 정리를 해주는 것인지, 자기감정에 충실한 그가 건강하게 알아서 울어주니 경기에 대한 아쉬운 감정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걸까? 그는 남이 우는 것을 보며 본인의 분한 감정을 털어낼 수 있게 해주는 희한하고 유일한 인물이다.

2) Neale Donald Walsh, 『신과 나는 이야기 3』, 조경숙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2019), pp50~55

문재인

본인은 정치를 잘 몰랐었기에 문재인이라는 인물도 잘 몰랐다. 그는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대통령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의로 이어졌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통령이다. 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본인에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 것을 처음으로 알게 해 준 대통령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는 “문재인은 합리적이고 교과서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며 어느 매체는 ‘합리적이고 중심이 잘 잡혀있어 안정된 성품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³⁾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며 이끌어 나가신다고 본다. 우리 삶 속에 인권의 존중과 평등, 균등한 분배. 정의 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성경에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장 24절)⁴⁾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우상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조금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치개혁을 해나가며 소득과 분배를 위주로 한 경제개혁, 인권 존중정책을 펴고 있고 본인은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의 방향성이 옳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갈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준다.

본인은, 낮가리고 수줍어하는 성격의 문재인이 이렇듯 열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 같은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사람이다. 약한 자에게 마음이

3) BUSINESS POST “[WHO IS?] 문재인 대통령”, 김디모테 기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5257 2020.09.18

4)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 『굿모닝성경』, (아가페출판사, 2010), p1280.

가 있는 모습은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다⁵⁾.

본인의 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자리가 있어 가까이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큰 눈을 깜빡거리며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착해서 그 마음에 반해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듣기만 하여도 본인이 본 듯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온다.

망치부인

망치부인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뒤숭숭할 무렵, 정치에 관심이 없던 본인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역사와 정치 등 사회 전반의 관심사에 대해 입문하게 해준 아프리카 TV의 BJ(Broadcast Jockey)이다. 거침없는 입담과 욕설 등이 거북하였으나, 그녀는 세상적인 것엔 욕심이 없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가짜 뉴스의 해로움과 왜곡된 뉴스들에 대해 팩트(fact)만 가지고 정치를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쉽게 반복 설명하는 것에 고군분투한다. 주로 뉴스기사를 기반으로 사회적, 정치적, 기타 이슈 등을 분석, 비판하고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분별의 기준이 성경적이며 역사학과 출신답게 판단과 분석이 예리하다. 이젠 본인도 뉴스나 토론들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 주었다. 정치를 잘 모르던, 뉴스만이 다 인줄 알았던 본인에게 1인 미디어 시대에 매우 유의한 방송이다.

그녀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작은 망치를 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망치가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그녀의 별명을 ‘망치부인’이라 짓게 된다.⁶⁾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부터 영향력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5)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 *ibid.*, p299.

6) 서울신문, “‘망치부인’ 이경선씨, 아프리카TV 닉네임 ‘망치부인’의 의미는?” 온라인뉴스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4500139>, 2016.03.04.

녀의 말대로, 작은 망치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두드렸을 때 탈출할 수 있었듯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내야 할 당연한 목소리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역사의 흐름과 정치, 경제, 사회현상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욕설이 섞인 거친 언어와 때로는 인정 많은 표현과 눈물로, 피 흘리는 심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말한 대로 대중은 공정성과 정의를 향해 의식수준이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 한 가정의 조그마한 방에서 그녀의 목소리와 작은 움직임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허준호

허준호는 삶의 굴곡의 깊이만큼이나 얼굴의 주름이 멋진 사람이다. 삶의 고단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눈은 이러한 감정들을 견디는 듯하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랑 소통해 본 적이 없는 듯 입은 꼭 다물고 있다. 정지되어 멈춘 듯 한 감정들을 누른 흔적들이 얼굴 주름과 눈, 꼭 다문 입에 묻어나 보인다.

한편 그가 맡은 배역들은 모두 그를 대변해 주는 듯하다. 영화 “실미도”에서의 조돈일 중사 역할 등, 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치 그의 성격이나 가치관 즉, 허준호를 보고 있는 듯, 단호하고 묵직하고 정의를 위해 외로운 싸움을 잘하는 배역이다. 이것이 그에게 몰입되는 이유이다. 2005년에는 뮤지컬 “갬블러”를 공연하러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기자와 인터뷰 중 독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말없이 걸어가 펜을 훑어 찢고는 “기분이 어떠세요?”라고 물었고, 기자는 사과했다고 한다.⁷⁾ 이런 일화가 나타내듯 그는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고 예들러 센스 있되 임팩트 있게 소신을 표현하는 멋진 개념파 배우이다. 그는 이혼 후 9년이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리

7) 나무위키, “허준호” <https://namu.wiki/w/허준호>, 2020.09.18

내지 않고 마음으로 우는 사람은 보는 사람도 슬프게 한다. 그가 자신에게 침잠해 있었던 긴 기간은 그의 상처의 깊이를 말해준다. 그는 손흥민과는 달리 감정을 털어버리는 기간은 길었지만 요즘은 주름 가득한 얼굴로 환하게, 진짜로 웃는다.

이하늘

악동 가수 이하늘이 방송에 출연해서 음악을 하는 것을 보면 경쾌하고 신이 난다. 그룹 DJ DOC는 세 명이 각자의 개성을 가졌음에도 노래할 때만큼은 안무나 동선이 자연스러워서 노래에 몰입하게 한다. 본인은 그 중에 이하늘에게 눈길이 간다. 그의 성장과정은 불우하였지만 선천적으로 음악적 자질이 많은 뮤지션이다. 그는 대중적인 곡을 발표하는가 하면 직설적인 화법에 비트가 강한 정통 랩도 선보인다. 욕설이 포함된, 과감하고 거친 곡들을 발표하기도 하며 세상을 향해 주먹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런데 본인의 시선을 끈 것은, 그가 2017년 10월 MBC 파업 콘서트에 참석하여 한 정치인을 공개 비난하여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물론 통으로 편집되어 방송은 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뉴스에서 본 후 ‘아직도 역시 거침없고, 하고 싶은 말은 하고야 마는 이하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대부분 다중(多重)적인 감정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그는 ‘정(情)’과 ‘물의를(物議)’ 두 가지의 양극적인 요소밖에는 없는 듯하다. 그 얼굴에는 그의 솔직함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인상적이다. 그리고 상황의 전후를 계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야 마는 부분이 부럽기도 한 반면 어둠과 밝음이 동시에 그의 속에 있어 불안하기도 하다.

크리쉬

평소 ‘뮤지션으로서 재능도 뛰어나고 인간성이 좋아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가 본인의 시선을 끈 것은 JTBC '한 끼 줍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이다. 젊은 청년으로서 건전한 생각과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가는 성실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꾸밈없는 밝은 표정에 점잖은 장난기도 있고 가식적이지 않은 친절함과 부드러움과 정중함이 보기 좋았다. 무엇보다 웃을 때 선함이 묻어나는 표정이다. 그의 웃는 얼굴은 특이하다. 얼굴에 잔 근육들이 많다. 일반 사람들의 웃는 얼굴보다 개미가 재밌게 기어 다니는 듯 부드럽고 웃는 표정도 밝았다.

2. 작품의 조형적 측면

1) 표현주의적 표현형식 - 감성이 내재된 색채와 붓 자국의 움직임

미술은 삶 속에서의 느낌이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시각적 표현은 점, 선, 면, 색, 재질, 공간 등의 조형 요소들이 조형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본인 작품의 표현 형식은 1900년 초 독일과 프랑스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 표현주의(表現主義)적 구상(具象) 미술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는 삶의 모습에서 야기되는 인간 내면의 정서와 감정이 어우러져 표출되는 ‘감성을 전달하는 메시지’로서의 ‘미술의 역할’에 주목하는 작가의 조형관에 기인한다. 그래서 본인은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작가인 뭉크(Edvard Munch, 1863-1944)의 표현방식을 좋아한다.

뭉크의 전시회에서 경험한 ‘삶의 이야기가 내재된 감성의 울림’은 본인의 작업방식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그린 풍경화나 인물화는 그 대상이 지닌 형상의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색채와 붓 자국의 움직임을 통하여 내면 깊숙이 잠재된 자신의 감성의 전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드러내어 보여 주었다. 이는 미술작품이 어떤 의미성을 지니기 위해 치밀한 자기 논리 위에 조형적 장치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규범에 얽매어 있던 본인의 강박관념과 정형화된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를 주었다. 본인은 ‘사실적 표현’보다는 주관적 감정과 반응을 직관에 의존하여 조형화하는 ‘감성적 표현’을 좋아한다. 뭉크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직관적 감성에 의존하여 물감을 덧입히지 않고 캔버스 밑바닥이 그대로 보이도록 순식간에 설렁설렁 그린 듯 붓 자국의 움직임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표현에서 진솔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강박

과도 같고 날 것 같은 감정을 생생하게 그대로 캔버스에 담은 회화적 메시지를 좋아한다.

본인은 내면에 내재된, 무엇이든 형용할 수 없는 감성의 흐름을 색과 자유분방한 붓의 움직임으로 드러내는 표현성을 추구하고 있다. 몽크는 그의 일기장에서 “여자들이 뜨개질을 하고 남자들이 책을 읽고 있는 실내화에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내 그림은 숨을 쉬고, 느끼고, 괴로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라 하였다⁸⁾. 이는 그에게 있어서 ‘그림의 생명력’은 작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의식 속에 잠재된 ‘내재적 상태의 감성적 표현’에서 나온다는 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본인 또한 본인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아쉬움과 희망들이 뒤섞인 삶의 이야기가 내재된 감성적 표현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다. 이의 구현을 위해 감정이 잘 드러나는 색채와 심리적 흐름을 유발하는 붓 자국이 형성하는 움직임을 주된 조형 수단으로 하여 작품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색은 미적 요소 중 가장 감각적이라 할 만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조형 요소이다. 어떠한 조형 요소보다 생명감이 있고 본능적인 시각성을 느끼게 하며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표현성을 띄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색은 감성적 표현을 추구하는 본인 작업의 주요 표현 수단이다. 색은 감성을 자극하고 유발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기에,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감성적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작품의 소재로 드러나는 인물을 떠올리며, 그 대상의 성정이나 그 대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감성에 부합하는 색을 먼저 결정하고, 그 감성의 진폭과 흐름을 견인하는 요소로서 붓의 움직임을 생각한다. 선택된 색채는 작품 전체를 이루는 주조색(主造色)으로서 사용되고, 이 색채를 바탕으로 명암이나 색상 대비를 강하게 하거나 또는 완만하게 하여 감정의 높낮이를 조

8) 유성혜, 『몽크』, (아르테, 2019), p198

절하여 표현한다.

우리는 색채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를 기본색으로 하여 이들을 서로 혼합하여 중간색을 만들거나, 흰색이나 검정색을 섞어 톤(tone)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격렬하고 정열적이며 파란색은 차갑고 슬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떠한 색도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이는 옆에 놓인 색과 색조의 농담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빨간색도 옆에 놓인 색채에 의해 차분하기도 하며 파란색도 도발적인 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색을 어떠한 크기로 화면에 배치하는가와 붓 터치 크기와 속도,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성에 따라서도 또 다른 성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색채화가 마티스와 샤갈과 피카소의 색에 대한 개념적 비교를 살펴보면, 이들은 색의 성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거나, 그 표현의 그 사용방식을 공식처럼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⁹⁾ 그들은, 색은 색 그 자체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회화의 바탕을 이루는 주요 요소로서 그때그때의 직관에 따라 대부분 선택되고 사용되기에, 굳이 색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색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지는 신체적 행위에 의해 드러난다. 즉, 그림을 그리기 위해 드러나는 붓질의 흔적은 감정 상태에 의한 신체의 물리적인 힘과 호흡의 흔적이다. 즉, 작업하는 순간순간의 의식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다. 붓을 움직이는 신체적 활동 속에는 작가의 감성이 내재되어있기에 시각화되어 드러나는 붓 자국의 흔적에서 우리는 작가의 숨소리와 함께 그 감정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서 잘 드러난다. 이 그림의 구성을 주도하는 것은 붓 터치에 의해 형성되는 리듬으로서 회화적 이미지를 만드는 붓 자국 속에는 감성을 유도하는 리듬이 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다

9) ㈜미술사랑제작, 『MARC CHAGALL』, (한국일보, 2004), p47

소 숨을 죽이며 절제된 감정으로 붓 자국의 흐름을 형성해 밤하늘의 신비로운 별과 대기의 살아 생성하는 감성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고희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붓의 흐름은 감정이 격해지면 커지거나 거칠어지며 빠른 속도를 드러내며, 부드럽고 반복적이며 절제된 붓질의 흔적은 안정되고 평안한 감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감성적 표현은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붓 자국과 그들이 모여 이루는 동적 흐름은 다양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 요소이기에 색채와 함께 본인의 감성을 표출하는 주요한 조형적 수단이다.

2) 삶의 내적 감성이 깃든 얼굴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로서, 그 속의 '표정'에는 삶의 고난과 기쁨 그리고 사랑과 희망의 '삶의 내적 감성'이 깃들어 있다.

본인의 작업에 드러나는 인물은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마스크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그들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본인은 그들을 통해 오늘의 시대를 만나고 감지한다. 본인의 작품은 그 인물들의 얼굴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사람의 얼굴은 그 인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호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얼굴이 주어진다. 그 하나의 얼굴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표정 또한 자신의 삶의 여정에 따라 다르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자신의 삶 속에서 농축된 생각과 느낌이 결합된 '삶의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천태만상의 거울'이다. 본인의 작품은 얼굴 표정에 담겨있는 감성을 시각화하여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난 얼굴 이미지는 본인이 관찰한 인물들의 얼굴이며, 본인에게 남아 있는 그들의 인상(印象)이다. 이는 그리운 '인간적 면모'의 표정이다. 본인의 작업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정서와 사고, 어쩌면

본인 자신도 모르는 아주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정체성을 각 인물을 통하여 마주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동그라미를 그리며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 왔다.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려지는 사람’¹⁰⁾과의 ‘감성적 만남’은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애적 교감이다.

본인은 ‘구상적 표현양식’으로 인물의 얼굴을 조형화하여 삶의 내적 감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기에, 그 인물 고유의 얼굴 모습과 그 표정에서 감성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조형적 표현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게 표현되어야 하며, 그 인물의 얼굴의 표정은 그 사람 고유의 감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그 얼굴을 시각적 측면에 충실한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면, 전형적인 초상화처럼 이성적 표현성이 우선적으로 부각되기에 감성적 표현의 구현이 어렵다. 이에 그 인물 표정의 감성적 표현성을 우선하기 위해 구상적 표현 양식으로 인물의 이미지를 조형화 하였다. 마치, 카메라 줌을 당겨 접사하여 촬영하듯이 얼굴 표정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표정을 형성하는 이목구비 외에는 과감하게 생략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얼굴 윤곽과 배경이 만나는 면과 면의 경계 부위를 흐리게 풀어줌으로써 표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은 감성이 잘 드러나는 색채와 자유롭게 감정에 충실하게 그어 나갈 수 있는 드로잉적인(drawing, 線的인) 표현성을 좋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인물의 얼굴 표정이다. 그 표정의 인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감정을 유발하는 색채와 선적 표현으로 얼굴 표정을 형성하는 주름 표현에 주목하여 표현하였다. 이에 얼굴의 색채는 실제 얼굴색이 아닌 본인의 내적 감성에 조응하는 색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선택된 색채를 주조색(主造色)으로 설정하여 동일한 색조의 다양한 변주로 인물의 감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10) 쉬레이, 『얼굴, 시간을 새기다』, 김정자 역, (시그마북스, 2011), p12 차용

문득 시선이 가서 그려진 사람은 단지 외적 인상에 대한 조형적 형상보다는 자신의 삶의 기록과 내면적인 감성이 드러난 표현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작업자는 그 사람의 '삶의 내적 감성이 만들어낸 모습'과 조용하여 얼굴 표정을 그린다.

감성을 드러내는 순간순간의 다양한 얼굴 표정은 피부 아래의 수많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주름이 형성되어 이루어진다. 그 인상을 좌우하는 얼굴기관인 눈, 코, 입에서 자아내는 주름이나 근육은 선의 대체적인 요소로서 붓 터치로 본인의 그림에서 드러난다. 선적 표현은 주어진 형식 없이 지극히 개인적인 정서가, 내재된 순간적인 감흥에 따라 그어나갈 수 있는 조형요소이다. 미묘한 높낮음을 가진 얼굴 주름은 중첩된 선적 표현성을 지닌 붓 자국의 중첩으로 대체되어 인물 표정의 윤곽을 형성한다. 그 위에 근육의 움직임을 붓 터치로 드러내어 그 표정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의 흐름을 고양시키기 위해 감정이 격앙된 표정은 주름과 근육의 움직임을 상승하는 듯 한 사선방향으로 크고 빠른 붓 자국으로 상기된 느낌(그림1, 2, 3, 9)을 유발하고자 하였으며,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은 붓 자국의 움직임을 수평방향으로 형성하여 평정의 느낌(그림 4, 7, 9, 12)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인의 붓 터치가 형성하는 방향성은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 조형적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의 이목구비의 주름과 근육의 움직이는 방향성을 유심히 관찰하여 이를 붓의 움직임으로 유도하여 감성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순간의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영 우는 표정, 애환의 아픔과 슬픔을 안으로 삼키며 지어내는 담담한 얼굴 속에 담겨 삶의 의지가 느껴지는 표정, 다소 경직된 모습의 이면에 감지되는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의 표정, 마치 어린아이처럼 거침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설파하는 열정적 모습의 표정에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나의 자아를 일깨우는 감성을 발견한다.

3) 작품 분석

손흥민



[그림 1]
손흥민의 울음 1
91 × 72.7 cm,
oil on canvas, 2018

[그림 2]
손흥민의 울음 2
91 × 72.7 cm,
oil on canvas, 2018

[그림 3]
손흥민의 울음 3
91 × 72.7 cm,
oil on canvas, 2018

세 작품에서 중심적인 모티프(motif)는 울음이다. 기존의 심상적 표현이라는 주제와도 연결된다. 색조는 전체적인 톤으로 완만하게 전환시키기도 하였고 노란색과 보라색의 보색 대비로 손흥민의 어린아이와 같은 장면을 표현하였다. 물감을 흘리고 칠하는 등의 붓질로 운동선수로서의 활동력과 액션의 상태를 표출하고 아울러 빨간색은 그의 열정을, 노란색과 보라색은 귀여운 어른의 울음을, 심상적인 정서나 기분 같은 내면의 정황을 그대로 바깥으로 드러내어, 역설적으로 심각한 울음을 극화시켰다.

[그림 1]은 2018년 6월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 vs 멕시코전에서 패한 후, 라커룸을 찾은 문대통령 내외분을 보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린 그의 우는 표정이다. 모처럼 그라운드에서는 동료선수를 달랠던 그인데 울음을 참던 아이가 엄마를 보면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듯이 대통령 앞

에서는 터지는 울음을 억지로 참으려니 얼굴이 더욱더 이지러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보며 본인은 그 예상치 못하게 구겨지는 표정이 너무 재밌고 우스워서 큰 소리로 웃었다. 어른아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빨간색과 오렌지색, 분홍색으로 전체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의 순수한 감정들을 초록색에 주황색을 섞어 배경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그의 내면의 정황을, 그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표출해 내는 울음에 초점을 두었다. 작업을 하면서 울고 싶은 심정을 본인도 말려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붓 터치도 빠른 속도감으로 절제하지 않고 올린 것이 발견된다. 배경은 심정에 더 집중하기 위해 큰 붓의 터치로 감정의 흐름을 연결시켜 주었다.

[그림 3]은 울고 싶은 감정을 실컷 울 수 있도록 여백에 물감을 흘려줌으로 감정의 흐름의 시간을 늘려주었다. 울고 싶은 감정이 완전히 씻기어 내려가도록 [그림 2]에서의 똑똑 떨어지는 눈물을, [그림 3]에서는 물감을 충분히 흘려주어 눈물이 흐르듯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문재인

뉴스에서 매일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인물이며 본인의 인물 작업그림 중에 작품수가 가장 많다. 관심이 많은 만큼 작업숫자가 많아진다. 다섯 작품의 연작을 시도하였으며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에 지친 모습, 심각한 갈등, 인간애 등을 표현하였다.

[그림 4]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문재인의 표정이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단지 한 편에 있던 사진의 일부분이다. 본인은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는 대통령은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낮가리고 수줍어하는 성격의 문재인이 이렇듯 열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장면들이다. 따뜻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다.



[그림 4]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7

국민을 향한 눈길은 따뜻하고 꼭 다문 입술은 국민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국민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고 어떠한 질문도 듣고자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과 성실함이 믿음직스럽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난 듯하다.

샤갈이 암울한 시대에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은 색깔로 빨간색을,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파란색을 등장시켰듯이 우리나라에 도래할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며 담아내 보았다.¹¹⁾ 일생을 통해 공정과 평등,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그에 대한 열망을 차분하게 그리고 서두르지 않으며 낙타가 사막에 길을 내며 가듯 국민을 바라보며 함께 가기를 희망한다. 부드러운 곡선과 같은 붓 자국은 온화한 색조로 순수한 인간의 안정감을 대비시킨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파란색을 기준으로 노란색과 흰색 또는 주황색과 흰색을 섞어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고자 하였다. 그의 앞에 서있는 본인도 안정감을 얻는다.

11) ㈜미술사랑제작, op. cit., p46, p70

[그림 5], [그림 6]에서 빨강은 애착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탁월한 색이며 대통령으로서 책임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8



[그림 6]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8

촉구, 강조, 협정 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할 때 나오는 표정이며, 산더미 같은 업무량으로 인해 항상 잠을 못자 눈이 부어 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는 남아있다. 시선의 방향과 말하고 있는 듯 한 입 모양은 대통령의 업무가 아직 진행 중임을 말해준다. 붓의 터치들이 큰 동작을 보여주진 않지만 동적이며 분주함을 보여준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진행 중인 열정의 온도를 높이는 강렬한 붉은 색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인의 바람도 담아본다.



[그림 7]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7

이 장면은 문재인이 2012년 1월 SBS TV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장면이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호송차로 이송되는 순간, 차를 향해 달려오셨던 어머니를 호송차 창문을 가린 철판의 백 원짜리 크기의 작은 구멍사이로 바라봤던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바쁜 일정으로 어머니에 대한 염려는 잠시 묻어두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스며져 나오는 듯 눈시울이 붉어지는 장면이다. 방송에 입고 나온 옷의 주황 색상을 중심으로 실제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야기하듯 그도 평범한 인간적인 면을 표현하였다.



[그림 8]
문재인,
40 × 40 cm,
oil on canvas, 2019

자신과 자신과의 단절, 자신과 타인간의 소통의 단절들은 답답하고 차갑고 건조하며 슬프고 우울하고. 참담하여 도피하고 싶다. 어둡고 위협적인 불안이 감싸기까지 한다. 대통령으로서 고뇌 중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한다. 어두운 배경은 위협적이고 불안하며, 직선적인 붓질들은 머리를 죄어와 긴장감을 준다. 그러나 얼굴을 비추는 빛은 목을 조여 오는 갈등 속에서 자신과의 마주함에 있어 회피하지 않으며, '존재성'에 관한 끝없는 의지를 보여준다. 애도의 색인 검정색과 흰색과 회색으로 대상을 주목시키고, 암울한 상황에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하였으며 갈색 톤(tone)위에 분홍색의 붓 자국은 암울함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기대하게 해준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체성, 그를 둘러싼 심각한 갈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결국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벽에 부딪치게 되지만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벽 앞에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모

숨이며 이를 통해 본인의 마음속에 직면하고 있는, 피하고 싶은 내적 갈등을 나타내려한다.

망치부인



[그림 9]
망치부인,
100 × 80.3 cm,
oil on canvas,
2019

전체 분위기와 함께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부조화는 그녀의 타고난 선한 심성과 자신이 일부러 욕설을 외우며 강한 성격을 만들어 붙인 것과 같다. 강렬한 색의 사용으로 거칠어 보이지만 그녀의 심성은 한없이 선하다.

눈은 불거져 나왔고 벌어진 입은 말문이 막혔거나 아니면 당장 비명을 지르는 듯하다. 어두운 시대와의 결별을 외치기 위해 말이 거칠고 강함을 입에 집중시켰으며 민족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선한 성품을 빨간색과 분홍색 톤으로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꿈보다 정치적, 역사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인간일 뿐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열정적이나 서두르지 아니하며,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가 길을 만들며 가듯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 멈추지 않고 가는 한 인간의 모습인 면에서 정치관이나 시사적, 신앙적 사고가 [그림 5], [그림 6]의 문제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허준호



[그림 10]
허준호,
53× 45.5 cm,
oil on canvas, 2017

여러 가지 심리적 동요(불안, 외로움, 고독, 좌절과 긴장 등)가 전면에 부각되어있다. 허준호는 얼굴 주름이 매우 멋져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작업을 하면서 그의 눈 속에서 보이는 고독한 서정성이 본인에게 이입되어, 그 겉보기에 멋진 주름에는 깊은 감정선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아팠다. 그의 꼭 다문 입과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외롭고 무거운 감정들을 감내하고 있다. 극명하게 나타나는 외부세계에 대한 단절은 붓질과 색조에서 두드러진다. 경계가 불분명한 형

태는 불안정해보이며 흐트러지고 썩어 썩어 쌓인 붓의 터치는 자기 내부에 지니고 있는 극한 감정들을 더욱더 극대화 시킨다.

인물의 시선, 암시적 분위기는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깊은 침묵에 침잠하는 본인과 일정 부분 닮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황하는 그의 슬픔의 표정에서, 내용은 다르지만 본인이 지닌 실존적 아픔을 읽어 냈으며, 그러한 면에서 본인과 그를 동일시했다.

이하늘



[그림 11]
이하늘,
100 × 80.3 cm,
oil on canvas,
2018-19

이하늘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이야기하기에는 다소 예민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은 방송이나 기사에 난 것으로만 그가 악동이라고만 평하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의 표출은 자유분방하지만 나름대로

정의로운 의식을 가진 그에 대해 본인이 느낀 그의 매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감성과 이성, 정의로움과 공격적인 성격이 공존하여 내적인 불협화음이 큰 존재이지만 정면을 향한 그는 세상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에는 불규칙하고 굴곡이 심한 선들과 붓질로 인해 표현적이고 거칠어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소는 부드럽고 정면을 향한 눈은 직선적이고 거침이 없는 듯하다. 이는 개구지고 인간적인 이하늘을 표출한다.

그가 가진 모든 감정들을 절제하지 않고 모두를 표출하며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와 같은 존재가 하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우울해지거나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 오히려 우리는 깊고 다양한 내면의 순수한 감정을 잃게 된다.

이 두 지대를 그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까닭은 음악 안에 있는 가사와 리듬이, 노래라는 소리로, 젊은이들과 함께 흥겹게 발산하며 어울려주는 그에게 사람을 좋아하고 기분 좋게 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작업에서 조금은 경직되게 재현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중적인 이미지의 애매한 관계를 표현해 보았다. 굵은 선들로 인해 표현적이고 거칠어 보인다. ‘인간’이 가지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면들을 드러내 보고 싶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를 작업하면서 점점 그의 귀여움에 빠져 들었는데 다소 거칠게 표현된 것이 아쉽다.

크러쉬



[그림 12]
크러쉬,
91 × 72.7 cm,
oil on canvas, 2019

크러쉬는 웃을 때 기어 다니는 개미들을 연상시키는 잔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삶의 밝은 측면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내적 기쁨과 진지한 그의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가볍고 평범한 듯하나 그의 부드러운 감성을 순수하게 전달한다. 생기 넘치고 스스럼없는 서정적 분위기를 붓 터치로 회화적이며 선의 울동적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다. 노랑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색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나 그를 생각하며 작업에 선택한 노란색은 봄에 피는 개나리꽃을 연상시키게 하고 싶었다. 그의 풋풋하고 밝고 부드러운 성품을 노란색으로 밝게 표현하고 싶었으나 그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있다.

리드미컬한 붓질의 흐름은 그의 노래를 따라하듯 울동에 따라 환기되고 그 특유의 수줍음과도 융화되어 꿈틀거리는 듯하며 조용하나 쳐지지 않으며 활기차나 선을 넘지 않는 그만의 명량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다.

손홍민은 “음악을 많이 듣는데 크러쉬 같은 친구가 있어 좋은 음악을 듣

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밝혀 혼돈함을 자아내기도 했다.¹²⁾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공간을 색의 무한한 변조를 통해 구상화시키는 것이다.

12) 한국경제TV, “크러쉬의 마성의 매력, 질친 손흥민도 최애하는 아티스트 인정”, 2018.05.09.

Ⅲ. 결 론

첨단 미디어와 기기의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 시대에 미디어는 지식을 생산, 배포하여 우리들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하는 다양한 정보는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사고와 시각을 갖추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자연스럽게 본인 작업의 관점에 많은 영향을 준다. 시각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본인에게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많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미디어에 드러나는 인물이 매 순간 자아내는 얼굴 표정이나 몸짓들에서 인간적 면모나 진정성을 느끼기도 하고, 가식적 면모를 느끼기도 한다. 때로는, 이들의 모습에서 본인이 바라던 삶이나 본인에게 결핍된 아쉬운 삶의 모습을 깨닫는 자아를 발견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시대의 각 방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인물이다. 이들은 1950년대 팝아트가 드러내는 집단 광고에 기인한 대량 소비사회 시대의 아이콘(icon)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는, 동 시대 삶을 함께 이루어 가는 친근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에 관련된 정보들은 미디어 검색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토론하기도 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현상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만들어 가기도 한다. 본인은 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접하면서 갖는 ‘삶의 감성’을 시각화하여 ‘삶의 이야기’를 드러내고자 한다. 관심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대상을 그린다는 것은 그 대상의 어떠한 면에 이끌리게 되어 표현하고 싶어서이고, 표현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이다. 그 이야

기 속에는 삶의 감성을 담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인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실존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노아 대홍수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떠한 환경과 죄의 형편에 놓여 있든지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며, 각자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포용하고 안아주셨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며 회복시키신다.

각자의 삶의 노정과 방향에 대한 해법은 다르지만,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 아래에서 소신을 추구하는 치열한 몸부림은 성경적 인간의 실존과 회복을 기대하게 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이나 자라온 환경, 성격, 성품들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은 ‘정의롭고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사람은 상하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중적인 이미지가 보는 사람에 따라 반드시 같은 의미와 내용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은 문재인의 정책들에서 비롯된 불편함들, 이 하늘의 악동 이미지, 망치부인의 거친 말투 등을 싫어하며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려는 심리의 라쇼몽 현상¹³⁾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보려는 확증편향(確證偏向)¹⁴⁾의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형적으로 얼굴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굽은 선, 가는 선, 두툼한 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표정이 형성되기에, 다양한 조형적 표현성을 구현할 수

13)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을 영화화한 일본고전 영화 라쇼몽(羅生門)의 등장인물들처럼 '관계자들이 객관적 현상을 주관적으로 서로 다른 증언을 하는 것'을 라쇼몽 현상이라고 한다. <https://namu.wiki/w/%EB%9D%BC%EC%87%BC%EB%AA%BD>

14)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1065&docId=2176162&categoryId=51065>

있는 가능성을 지닌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얼굴 표정에는 내재된 생각이나 감정이 근육의 움직임으로 예민하게 드러나기에, 미세한 조형적 행위에도 의도와 다른 표정으로 변하여 의도한 표현성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하늘은 귀여운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으나 거친 선들이 많아서 아쉬웠고, 손흥민의 울음은 철철 흐르는 물같이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표현하여 슬픈 감정을 털어버리는 느낌을 주고 싶었지만 표정과 근육들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어 꾸밈과 가식 없는 울음의 느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망치부인의 거친 입, 문재인, 허준호의 인간적 면모를 드러내는 표정에 대한 표현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대상과 본인이 연관되어 야기되는 감성표현에 아쉬움을 갖는다.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어떠한 생각과 표현 방식으로 표현해 왔을까? 고대에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 할 때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왔으며, 르네상스 이후 인간중심 사상은 신보다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구현해 왔다. 현대에는 인간 내면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미술의 표현은 개인의 주관에 의한 표현임과 동시에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었음을 보여 준다. 실상, 예술가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때마다 기존의 예술계의 작동 논리와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왔다.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며 비대면의 소통이 난무하는 미디어 시대에 미술의 표현 또한 기존의 작동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삶의 환경으로서 자리 잡은 미디어 시대의 미술은 ‘어떠한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며 ‘어떠한 관점의 표현 방식’으로 시각화하여야 할까?

또한, 보고, 느끼며 생각하고, 표현하는 시각예술 창작의 원론적 입장에서 ‘오늘의 삶의 감성’을 담고자하는 본인 작업의 표현양식이 오늘의 시대성을

답을 수 있는 모양의 그릇인지? '전통회화 표현양식'에 함몰되어 그 속에서
변주되어 여기저기에 답아 보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새로운 시대성을 담은
그릇'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본다.

참 고 문 헌

- 굿모닝성경편찬위원회, 『굿모닝성경』, 아가페출판사, 2010.
- 김광우, 『몽크, 쉴레. 클림트 : 표현주의의 대가들』, 미술문화, 2016.
- 김세리, 『시각과 이미지: Vision & Images』, 이담북스, 2013.
- 나무위키, “허준호” <https://namu.wiki/w/허준호>
- (주)미술사랑제작, 『MARC CHAGALL』, 한국일보, 2004.
- 서울신문, “‘망치부인’ 이경선씨, 아프리카TV 닉네임 ‘망치부인’의 의미는?”
온라인뉴스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4500139>
2016.03.04.
- 쉬레이, 『얼굴, 시간을 새기다』, 김정자 옮김, 시그마북스, 2011.
- 에바 헬러, 『색의 유혹 재미있는 열세가지 색깔 이야기 1』, 이영희 옮김,
예담, 2002..
- 유성혜, 『몽크』, 아르테, 2019.
- 유영만, “<<미디어의 이해>>, 왜 미디어가 매체가 아니고 메시지인가?”,
blog,2020.10.22. <https://blog.naver.com/kecologist/221164716614>
- 임승현, “editor’s view 껍데기는 가라”, 월간미술, 2016 12월호.
- BUSINESS POST “[WHO IS?] 문재인 대통령”, 김디모데 기자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5257
2020.09.18.
- H.W. 쟈슨 & A.F. 쟈슨, 『서양미술사』, 최기득 옮김, 2008.
- Martin Buber, 『나와 너』, 김천배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9.
- Neale Donald Walsh, 『신과 나눈 이야기 3』, 조경숙 옮김, 아름드리미디어,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Emotional Expression of the Character in the Mass Media

Hong, Seung Ra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study the contents and formative development process, focusing on the entries of the exhibition for master's thesis "Eyes, Objects and Painter" in March 2019 among the works produced in the graduate course from 2016 to 2019.

We've just been getting news on television and newspapers. But now, with the advent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s, news and informa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n be quickly learned without much efforts. This development of digital media is opening the "One-Person, One-Media Era" in which individuals can film and edit events and even broadcast their views to multiple people.

My works feature "people with popular recognition," which are often seen on TV or the Internet. Although they have never actually met, talked with, and expressed their feelings, they are somewhat of an attracting figures among those passing by in the media. Interest in them has naturally led to the point of searching for informations about them on the Internet or YouTube, making them seem like people who have always had personal connections to meet. In addition, that gradually made me prepare myself

for my life and look back on my identity. In this process, their personal lives as symbolic images are naturally expressed in my works to talk about the "sensitivity of life in the same age." Although there is no face-to-face relationship and informations about them are not direct, these expressions are possible because it is a media age that is established as environment of life.

My works revolves around the face of a character. The face is a 'symbolic image' that reveals the identity of the character. It is a representative body part that stands for a person's identity, with major sensory organs such as eyes, ears, nose, and mouth converging to show the facial expression intuitively with fine muscle movements at every moment. And because the "trace of life" is fully imbued, it is expressed as a work, paying attention to the role of image that can express "life's sensibility."

I revealed these characters in the form of "Expressionistic Figurative art." This is to express the "sensitivity of life" associated with my life in the same age. Thus, the works were carried out using "emotional colors" and "the brush strokes that cause the flow of emotion" as a means of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rt Environment of the Media Age," which dominates today's life as a "mirror for capturing the times," and to recognize the "meaning of the times" of my works, which is expressed based on the characters I've met through the media. Based on this logical basi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challenges that my work should solve and find a way forward.